



세종시 빈집은 어디에, 얼마나 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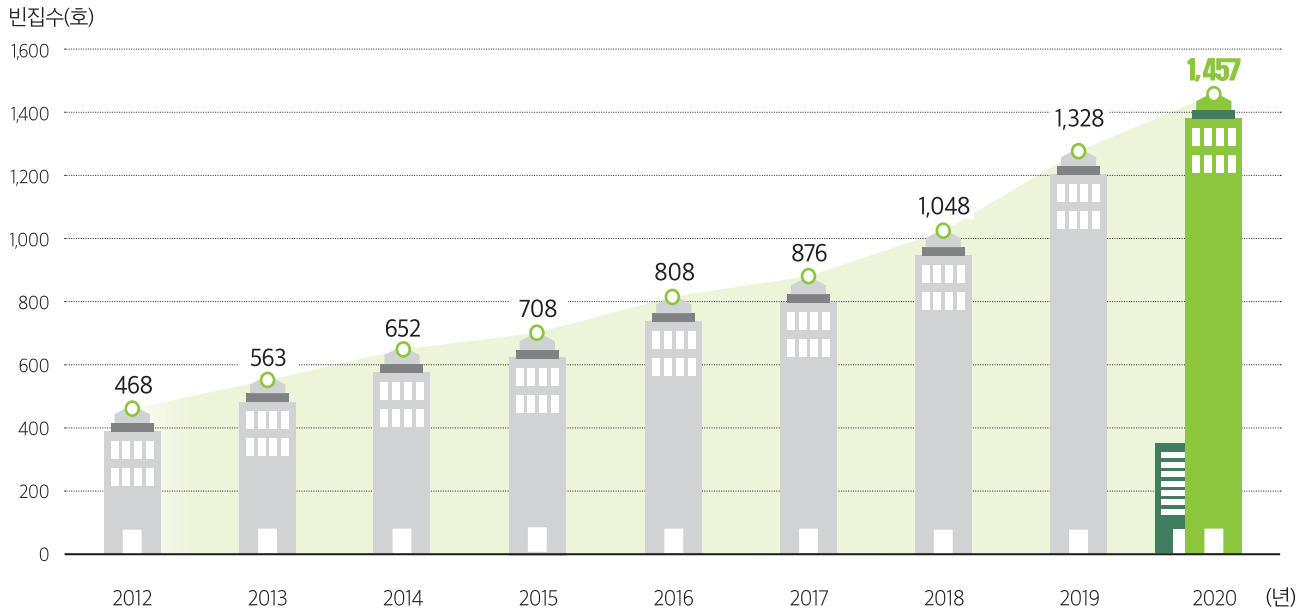


01 전력데이터 빈집 추정* 결과, 세종시 빈집은 약 1,457호

▶ 세종시 빈집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(2012년 468호 → 2020년 1,457호 약 211.3% 증가)

- 주거용 계약가구수(2012년 17,982호→2020년 20,900호) 대비 빈집의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, 8년 동안 167.9% 증가

세종시 빈집 추정



구분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빈집수(호)	468	563	652	708	808	876	1,048	1,328	1,457
비율(%)**	2.6	2.6	3.1	3.5	4.0	4.4	5.2	6.4	7.0

* 12월을 기준으로 1년간 유지된 계약호수를 대상으로 12개월 총 사용량 0kwh인 주거용 전력데이터로 추정

동지역의 빈집은 신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·미입주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어 동지역을 제외한 읍·면 지역을 대상으로만 빈집 추정

** 비율은 주거용 계약가구 대비 빈집 비율

02 세종시 읍·면별 빈집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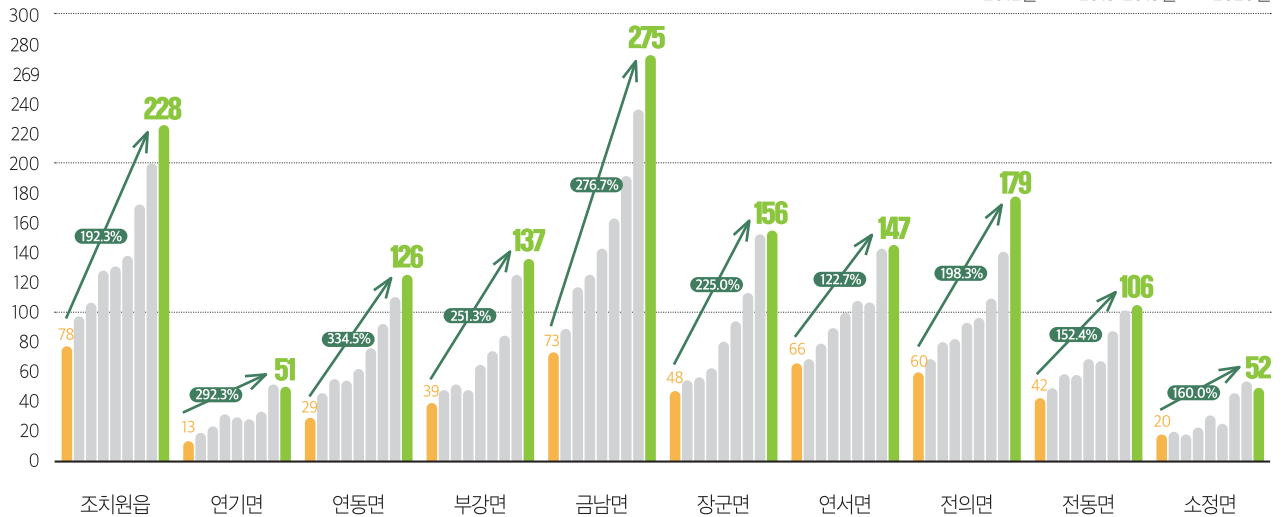
▶ 세종시 빈집은 모든 읍·면 지역에서 증가 추세

- 2012년 대비 빈집 발생 증가율은 연동면이 29호에서 126호로 가장 크게 증가
- 다음으로 연기면(13→51호), 금남면(73→275호) 순으로 증가

세종시 읍·면 지역 빈집 현황

빈집수(호)

● 2012년 ● 2013-2019년 ● 2020년



*저자 직접 촬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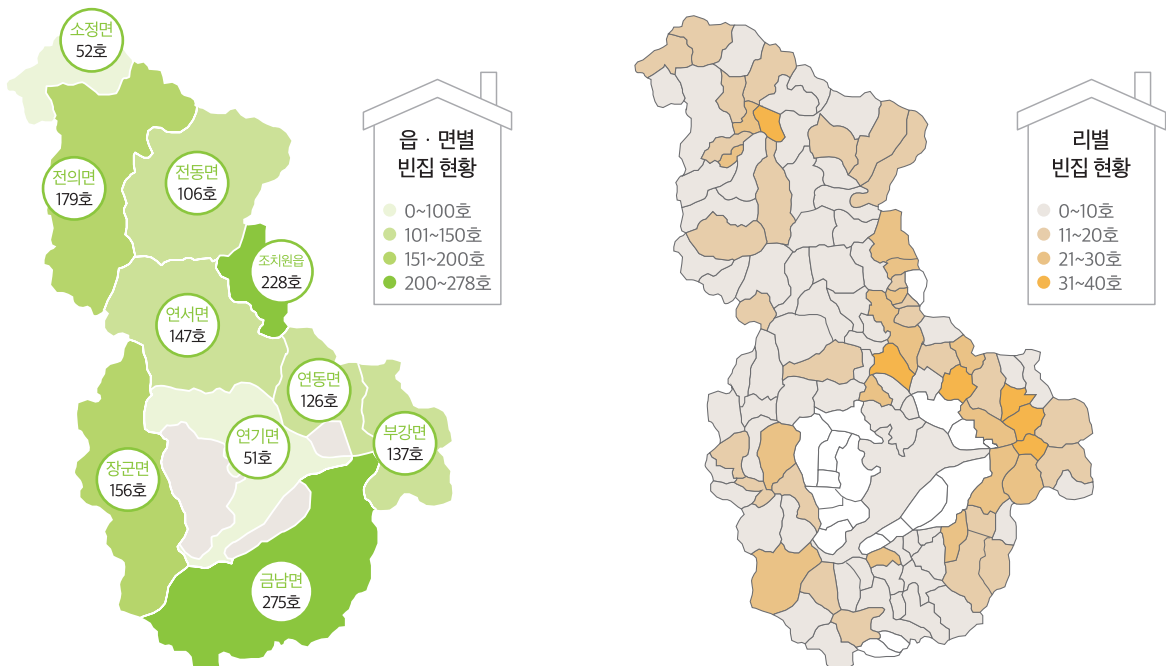
▶ 금남면이 275호로 빈집이 가장 많이 분포

- 읍·면 지역별로 살펴보면, 금남면이 275호로 가장 많으며, 조치원읍 228호, 전의면 179호, 연기면과 소정면이 각 51호, 52호로 가장 적음

▶ 리별로 살펴보면 세종시 동부에 빈집이 많이 분포

- 특히 부강면 부강리가 37호로 빈집수가 가장 많고, 부강면 갈산리, 연동면 내판리, 연서면 봉암리, 정의면 동교리, 금남면 황용리가 각 32호로 많이 분포

읍·면, 리별 빈집 공간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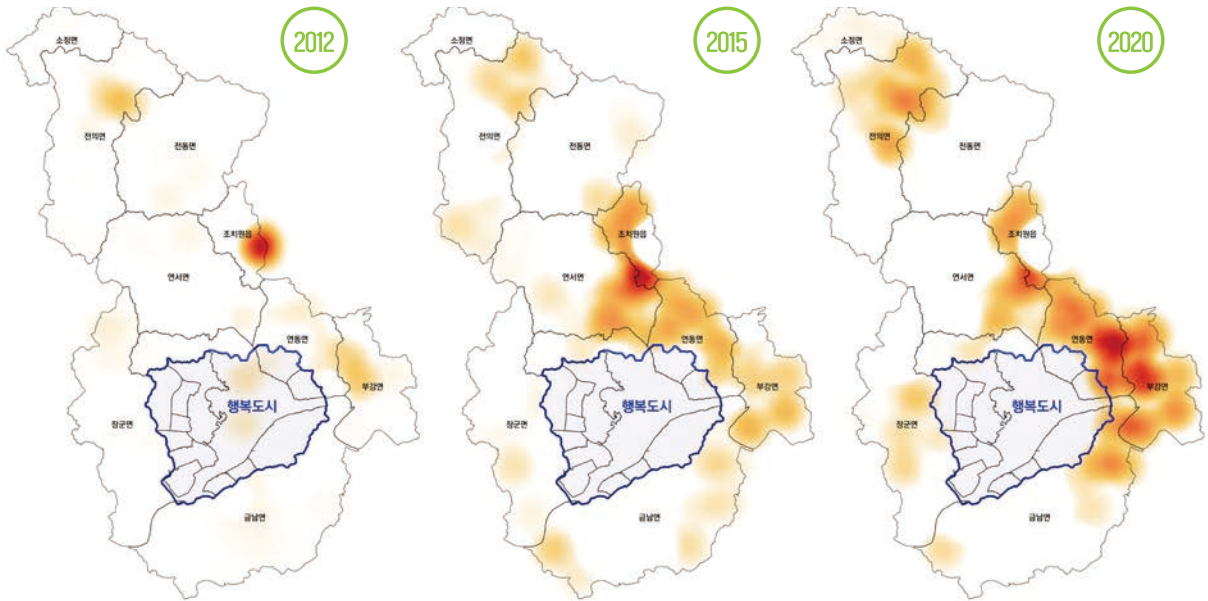


03 세종시 출범 이후 빈집은 지속적으로 확산

▶ 세종시 빈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군집을 이루면서 지역으로 조금씩 확산

- 2012년에는 조치원을 정리, 명리, 남리와 연동면 문주리, 용호리에서 높게 나타나며, 2015년에는 연서면 율하리, 부동리와 조치원을 번암리, 신흥리, 봉산리에서 높게 나타남
- 반면 2020년에는 연동면, 부강면 등에서 높게 나타나는데, 특히 연동면 응암리, 명학리, 부강면 부강리에서 높게 나타남

세종시 빈집 핫스팟 분석*



* Z-Score 값으로 표현

세종시 차원의 적극적 개입 필요

-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 제시
- 세종시 빈집탱크 구축

세종시 빈집문제 해결 방안

세종시 시민거버넌스 (주민자치회, 읍·면 발전위원회)와 연계

빈집 발생 위기의식 및 사회적 관심을 지역주민과 공유